

인구 및 가족계획에 관한 연구

태도 및 지식에 관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 모 임
보건 간호학 교실 김 의 숙

I. 서 론

오랜 역사가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인류의 숙적의 하나는 질병입을 증명했고 따라서 질병퇴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 그결과 건강과 장수를 누릴 UTOPIA 건설의 꿈을 가지고 살아왔다.

오늘날 이 노력의 결과로 질병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격히 저하되고 평균수명이 날로 늘어가는데, 굶주던 지상낙원은 커녕 과잉인구현상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출생을 감소 없이 사망을 감소로 온 인구과동이 곧 과잉인구현상이다.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보존하려면 질병퇴치와 더불어 인구조절도 불가피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가족계획 사업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적사업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인구증가가 국민보건, 국가발전 및 번영에 미치는 심각성을 체험, 1962년 이래 가족계획사업을 보건사업의 일련으로 거국적으로 추진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가족계획사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보건사업의 부분으로 각광을 받게되었고 보건사업에 종사하게 될 의학생이나 간호학생에게 시급적으로 요구되는 임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 새로운 배움의 과제를 얻게 되었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가에서는 새로운 임무를 맡을 보건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인구와 가족계획분야에 대한 교육이 어느정도 시행되고 있는나를 연구하여, 보다 자적

있는 인적자원양성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인적자원 중에서도 간호원은 그 활동대상으로나 활동내용으로 보아 가장 중요한 핵심적 자원이며 따라서 앞으로 이 핵심적 인적자원이 될 간호학생들의 이 분야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학생들의 인구 및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태도와 지식은 앞으로의 국가적 가족계획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보아 인구 및 가족계획사업에 자신있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인적자원양성을 위한 대책수립에 기저가 되는 재료를 마련하는 본 연구는 큰 의의가 있으며 우리나라 간호학생의 인구 및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와 지식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과 앞으로의 간호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바란다.

II.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1969년 6월 현재 우리나라 각종 간호학교 39개소를 학교별 및 지역별로 나누어 서울 지역의 6개 대학과정에서 2개 대학, 7개 간호학교에서 2개 간호학교, 지방의 17개 간호학교에서 5개 간호학교, 9개 간호고등기술학교에서 4개 학교를 무작위 추출하여 총 13개 학교의 최고 학년(3학년 또는 4학년) 학생 전원에게 질문지를 우송했다.

6월 20일 부터 7월 20일 간에 회송된 질문지는 발송된 질문지의 78.0%였으며 이중 최고 학년(3학년)이 없어 질문지를 기입하지 못한 채로

만족한 학교가 있어 분석 가능한 질문지는 72.6%였다.

회송되지 않은 질문지는 22.0%였다.

질문지는 1964년 부터 1965년에 걸쳐 미국 Columbia대학, 뉴욕시 및 Syracuse대학의 Ronald W.O' Connor 교수 부처가 아시아 지역의 의과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Asian Medical Students and Family Planning: A study of Knowledge and Attitudes in thirty-three Medical Colleges"란 연구에 사용했던 것을 번역하여 사용했다. (별첨 참조)

무작위 추출된 학교의 학교장에게 질문지를 우송하면서 무기명으로 응답케 할 것과 이 자료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 숫자로만 발표될 것이므로 사전에 학생들에게 인위적인 지식 전달없이 시험 보는 형식으로 응답하여 보내 줄 것을 부탁했다.

III. 조사결과

A.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1. 응답자의 지역 및 학교별 연령 분포

응답 학생들의 연령 분포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 대학교정에서는 71.4%가 22~23세이고 간호학교 과정에서는 65.5%가 20~21세인데 반해, 지방 간호학교 과정은 50.0%가 20~21세로 다소의 연령차를 볼 수 있으며 간호고등기술학교는 78.3%가 18~19세이고 12.2%가 16~17세에 해당되는 학생이었다. 지방학교에서 서울학교보다 연령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이 많은 것은

<Table I> 지역 및 학교별로 본 조사 대상자의 연령 분포

(1969. 6.)

Age	16-17	18-19	20-21	22-23	24-25	무응답	Total
	%	%	%	%	%	%	%
서울 대학	0	23.4	71.4	2.6	2.6	0	100.0
서울 간호학교	0	65.5	34.5	0	0	0	100.0
지방 간호학교	0	28.5	0	29.2	0	17.9	100.0
지방 간호고등기술학교	12.2	78.3	2.6	0.9	0	6.1	100.0
Total	4.3	28.4	28.4	29.7	0.6	8.6	100.0

여러가지 사회, 문화적 요인을 생각케하는 현상이다. (표 1)

2. 응답자의 지역 및 학교별 종교 분포

응답자의 대부분이 신교였고 서울과 지방의 급격한 차이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약 20%가 무종교이고 평균 15%가 응답을 기피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서울의 간호학교에 있어서 거의 전원이 신교이고 무종교와 무응답이 각각 3.4%업을 미루어 볼때 특수 집단의 응답인상을 들어내고 있다고 하겠다. (표 2)

<Table 2> 지역 및 학교별로 본 조사 대상자의 종교 분포

(1969. 6.)

종교	신교	구교	불교	기타	무종교	무응답	Total
	%	%	%	%	%	%	%
서울 대학	41.6	20.8	0	0	28.8	16.9	100.0
서울 간호학교	93.1	0	0	0	3.4	2.4	100.0
지방 간호학교	33.0	18.9	2.8	0.9	22.6	21.7	100.0
지방 간호고등기술학교	40.0	21.7	6.1	0	20.9	11.3	100.0
Total	42.8	18.7	3.0	0.3	19.9	15.3	100.0

B. 응답자의 종교와 가족계획과의 관계

1. 가족계획 방법을 자신이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의 응답을 응답자의 종교별로 보면 "사용 하겠다"에서는 신교가 85.7%, 불교가 80.0%, 무종교에서 94.0%, 종교유무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56.0%, 구교에서 65.6% 이었고 "사용 안하겠다"에서는 구교가 2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 내었다.

종교에 관계없이 보면 78.9%가 "사용 하겠다"

<Table 3> 간호학생들의 종교와 가족계획 방법 사용과의 관계

(1969. 6.)

	구교	신교	불교	무종교	무응답	Total
	%	%	%	%	%	%
사용하겠다	65.6	85.7	80.0	94.0	56.0	78.9
사용안하겠다	22.9	5.0	10.0	3.0	14.0	9.5
무응답	11.5	9.3	10.0	3.0	30.0	11.6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9.5%가 “사용 안하겠다”이며 11.6%가 무응답이었다.

무응답은 구교에서 11.5%, 신교가 9.3%, 불교가 10.0%, 무종교가 3.0%, 종교 유부에 대한 질문의 무응답에서 30.0%로 이것은 질문 종류에 관계없이 시종여일한 무관심이 아니면 결정짓지 못하는 층으로 생각 된다. (표 3)

2. 종교와 직업과의 관계

가족계획에 대한 조언을 타인에게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의 응답을 또한 종교별로 검토해 보니 “할 수 있다”는 구교가 83.6%, 신교는 97.2%, 불교가 90.0%, 무종교가 92.4%이었고 응답자의 89.6%가 “조언 할 수 있다”라는 반면에 4.9%가 “조언 할 수 없다”이며 이 “조언 할 수 없다” 층 구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Table 4〉 간호학생들의 종교와 가족계획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겠는지의와의 관계 (1969. 6)

	구교	신교	불교	무종교	무응답	Total
	%	%	%	%	%	%
할수있다	83.6	97.2	90.0	92.4	72.0	89.6
할수없다	13.1	2.1	0	6.1	2.0	4.9
무응답	3.3	0.7	10.0	1.5	26.0	5.5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 우리나라 현 인구문제의 인식 및 지식

1. 간호학생들의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정도를 알기 위해 “우리나라의 현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해본 결과 지역 및 학교별의 극심한 차이는 없으나 총 응답자의 53.5%가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현 인구 수를 알고 있었고, 무응답인 13.5%를 포함한 46.5%가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심지어는 1,000만 이하라는 응답자가 1.8%, 4,000만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6.8%에 달했다. (표 5)

2. 우리나라 인구증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기 위해 “몇년만에 우리나라의 현 인구가 두배가 되느냐”는 질문을 해 본 결과 옳은 답을 할 수는 불과 28%이며 지역 및 학교별로 보아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서울지역 간호계 학교 응답자의 45% 이상이 옳은 답을 말하였으

나 지방학교에서는 20% 미만만이 옳은 답이었다. (표 6 참조)

〈Table 5〉 우리나라의 현인구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인식정도

(1969. 6)

		정확히 안다	모름			무응답	Total
		(2,900~3,100萬)	4,000萬이 상	1,000萬 이하			
서울	대학교	58.4	6.5	1.3	7.8	74.0	
	간호학교	69.0	3.4	0	0	72.4	
지방	간호학교	41.8	7.6	2.8	30.4	52.6	
	간호고등기술학교	57.4	7.0	1.7	5.2	71.3	
Total		53.5	6.8	1.8	13.5	75.6	

Note; 편의상 위의 항목의에는 제외하였으므로 Total이 100.0% 안됨

〈Table 6〉 우리나라 현 인구가 배가 되는 데 소요되는 년수

		17	23	35	69	무응답	Total
		%	%	%	%	%	%
서울	대학교	13	48	16	17	6	100
	간호학교	14	45	24	7	10	100
지방	간호학교	21	23	25	7	24	100
	간호고등기술학교	7	15	60	12	6	100
Total		14	28	35	11	12	100

〈Table 7〉 최근 이십년간 사망률 변화에 대한 의견 (1967)

구	명	증가했다(%)	변화하지 않았다(%)	감소했다(%)
인	도	19	9	35
파	키스란	18	24	51
실	론	12	5	78
싱	가플	23	12	54
타	이	12	3	66
비	울빈	16	18	65
대	만	8	1	90
한	국(의 학교)	20	6	64
한	국★(간호학교)	35	3	46

★ 1969년 통계

3. 우리나라 사망을 변화에 대한 의견을 등남 아 각종 의과대학생과 비교하여 보았는베(표 7) 사망율이 감소되었다고 옳은 응답을 한 대학 과정 간호학생수는 61% 이고 사망율이 증가했다는 틀린 응답을 한 응답자 수는 35%이다. 이것을 대단 의과 대학생 90%가 옳은 대답을 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 응답 학생들의 생정 통계에 대한 상식 및 인구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심에 회의를 금치 못하겠다.

4.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 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자의 46.8%가 출산율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5.2%만이 옳은 답인 사망을 변화라고 했으며 1.2%가 이주가 원인이라고 했다. 응답자의 많은 수가 출산을 변화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표 8)

5. 응답자가 생각하는 국가적 과제는 무엇이며, 인구 문제를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응답자가 생각하는 국가적 과제 세가지를 순위를 매겨서 기록하도록

<Table 8> 간호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인구증가를 변화의 원인

(1969. 6.)

		출산율 변화	사망율 변화	출산율과 사망율의 변화	출입국자수변화	무응답	Total
		%	%	%	%	%	%
서울	대학	39.0	9.1	51.9	0	0	100.0
	간호학교	58.6	3.4	37.9	0	0	100.0
지방	간호학교	48.1	3.8	40.6	2.8	4.7	100.0
	간호고등기술학교	47.8	4.3	45.2	0.9	1.7	100.0
Total		46.8	5.2	44.7	1.2	2.1	100.0

<Table 9> 현 우리나라의 국가적 삼대 과제

(1969)

		국방	경제성장	식량	인구문제	공중보건	교육문제
서울	대학	3	1		2		
	간호학교	2	1		3		
지방	간호학교	1	2				3
	간호고등기술학교	1	2				3

※ 1. 2. 3.은 각 학교에서 숫자가 많은 순위

하였던 바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지방에서는 인구문제가 국가적 3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울지역에서는 인구 문제를 학교에 따라 2위 혹은 3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지역에서는 경제 성장이 국가의 최대 과제이고 그 다음이 국토 방위 및 인구문제이며 지방에 있어서는 국토방위가 1위, 다음이 경제 성장, 3위가 공중보건 문제이다.

D. 우리나라 가족 계획 사업에 대한 직업적 태도 및 의견

1. 가족계획이 국가적 프로그램으로 필요한지의 질문에 "절대 필요 하다"가 총 응답자의 63.9%, 무응답과 "의견 없다"가 26%이고 "필요하나 중요하지 않다"가 약 10%이며 "필요 없다"

<Table 10> 가족계획을 국가의 시책으로 정한데 대한 간호학생들의 의견 (1969. 6)

		절대 필요	필요하나 중요하지 않다	필요없다	의견 없다	무응답	Total
		%	%	%	%	%	%
서울	대학	84.4	7.8	0	3.9	3.9	100.0
	간호학교	79.3	6.9	0	3.4	10.3	100.0
지방	간호학교	50.9	12.3	0	6.6	30.2	100.0
	간호고등기술학교	58.3	10.4	0	14.8	16.5	100.0
Total		63.9	10.1	0	8.6	17.4	100.0

<Table 11> 간호학생들이 직업적 견지에서 본 가족계획 사업에 관한 의견

(1969. 6.)

		찬성	반대	★ 기타	무응답	Total
		%	%	%	%	%
서울	대학	92.2	3.9	3.9	0	100.0
	간호학교	100.0	0	0	0	100.0
지방	간호학교	81.1	3.8	4.7	10.4	100.0
	간호고등기술학교	81.7	2.6	15.7	0	100.0
Total		85.6	3.1	7.9	3.4	100.0

★ 기타 : 1. 간호원 전체의 의견으로 표명된 것이 없다.

2. 일반적인 의견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3. 찬성, 반대 양쪽에 다 기입.

는 의견을 표시한 응답자는 하나도 없었다. (표 10) 가족계획 사업이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엔 지방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은 서울지역 각 간호학교에서의 응답자 수가 다수인 반면에 지방에서는 필요하나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위였다. 의견 없거나 무응답도 지방으로 갈수록 많은 편이라 하겠다.

2. 간호 학생들이 직업적 견지에서 보아 가족 계획 사업을 찬성하는냐는 질문에의 응답을 보면 대부분이 (85.6%) 찬성이며, 반대가 3.1%, 기타 및 무응답이 약 11%가 된다. (표 11)

3. 가족계획이 필요로 되는 사람들에게 졸업 간호원으로서 가족 계획을 위한 조언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89.6%가 “할 수 있다”, 약 5%가 “할 수 없다”였고 무응답은 5.5%였다. (표 12) 이에 대한 학교별, 지역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하겠다.

4.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려 오지 않는 사람들

〈Table 12〉 가족계획이 필요로 되는 사람들에게 졸업간호원으로써 가족계획 조언에 관한 반응 (1969. 6.)

		할수있다	할수없다	무응답	Total
		%	%	%	%
서울	대학	94.8	3.9	1.3	100.0
	간호학교	96.6	3.4	0	100.0
지방	간호학교	81.1	6.6	12.3	100.0
	간호고등기술학교	92.2	4.3	3.5	100.0
Total		89.6	4.9	5.5	100.0

〈Table 13〉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려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졸업간호원으로써 가족계획 조언에 관한 반응 (1969. 6.)

		할수있다	할수없다	무응답	Total
		%	%	%	%
서울	대학	79.2	18.2	2.6	100.0
	간호학교	79.3	17.2	3.5	100.0
지방	간호학교	67.0	14.1	18.9	100.0
	간호고등기술학교	76.5	18.3	5.2	100.0
Total		74.3	16.8	8.9	100.0

〈Table 14〉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계획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반응 (1969. 6.)

		사용하고있다	아니다	모르겠다	무응답	Total
		%	%	%	%	%
서울	대학	74.0	24.7	1.3	0	100.0
	간호학교	86.2	10.3	3.4	0	100.0
지방	간호학교	81.1	10.4	5.7	2.8	100.0
	간호고등기술학교	86.1	6.1	7.8	0	100.0
Total		81.7	12.2	5.2	0.9	100.0

에게도 가족 계획이 필요로 되는 사람들이면 가족 계획에 관한 교육 및 권유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다”가 74.3%, “할 수 없다”가 16.8%, 무응답이 8.9%였다. 지역별 및 학교별 차이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표 13)

E. 응답자들의 가족 계획에 관한 지식

1.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 계획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 82% 정도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알고 있었으나, 아직도 응답자 가운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12.2%, “모르겠다”가 5.2% 이다. (표 14)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견에는 지역별의 큰 차이를 볼 수 없으나 “모르겠다”나 무응답자 수는 지방에서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 간호 학생들이 응답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족 계획 방법으로는 Loop가 47.7%이고 Oral Pill이 21.7%이고 나머지는 무응답으로 18.7%였다. (표 15)

3.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가족계획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30.6%가 무응답으로 수위이고 정관 수술이 19.9%로 2위, Loop 또는 Ring이 17.4%로 3위였다. 지역별 및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 지역의 대학 과정의 응답자는 Loop 또는 Ring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간호 학교의 응답자는 정관 수술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의 간호 학교는 무응답이, 간호 고등 기술 학교는 정관 수술이 수위였다. (표 16 A)

4. 여러 가지 가족계획 방법중 Oral Pill은 응

<Table 15> 간호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족계획 방법

(1969. 6.)

		Condom	월경주기	세척법	Loop or Ring	Oral Pill	정관수술	난관수술	무응답	기타
서	대 학				1 (39.0%)	3 (23.4%)			2 (33.8%)	
을	간호학교	1 (20.7%)	2 (13.8%)			2 (13.8%)	2 (13.8%)		2 (13.8%)	2 (13.8%)
지	간호학교				1 (44.3%)	2 (21.7%)			2 (21.7%)	
방	간호고등 기술학교				1 (66.1%)	2 (22.6%)			3 (7.0%)	
Total					1 (47.7%)	2 (21.7%)			3 (18.7%)	

Note; 응답수가 많은 차례로 순위를 정했음.

<Table 16 A> 간호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가족계획 방법

(1969. 6.)

		Condom	월경주기법	기초체온법	Loop or Ring	Oral Pill	정관수술	난관수술	무응답
서	대 학				1 (29.9%)	3 (20.8%)			2 (21.7%)
을	간호학교		2 (27.6%)				1 (48.3%)		3 (17.2%)
지	간호학교				2 (11.3%)		2 (11.3%)		1 (49.1%)
방	간호고등 기술학교				3 (19.1%)		1 (28.7%)		2 (20.9%)
Total					3 (17.4%)		2 (19.9%)		1 (30.6%)

Note; 응답수가 많은 차례로 순위를 정했음.

<Table 16 B> 간호학생들이 알고 있는 가족계획 방법

		Oral	Condom	Diaphragm	IUCD	Surgical	Jelly/Foam	Coitus interruptus	Rhythm
서	대 학	% 74	% 68	% 44	% 74	% 88	% 47	% 8	% 57
을	간호학교	33	97	14	38	127	72	3	121
지	간호학교	48	33	0	61	77	17	6	43
방	간호고등 기술학교	67	70	4	83	95	40	4	40
Total		60	60	13	70	90	37	5	52

- ※ 1. Surgical은 난관, 정관 수술 두 방법 포함.
- 2. Rhythm은 월경주기법과 기초체온법 두방법 포함.
- 3. 총 327명을 100%로 놓고 계산함.

답자의 약60%가, Condom은 60%, Diaphragm 은13%, IUD는 70%, Surgical Method는 90%, Jelly와 Foam tablet은 37%, Coitus Interruptus 가 5%, Rhythm Method는 52% 정도가 알고 있었다. (표 16 B)

5. 응답자가 가족 계획에 대한 지식과 지도를

<Table 17> 간호학생들이 알고있는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과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의원. (1969. 6.)

		가족계획기관	의사	부모	친척	친구또는학생	없다	응답수
서울	대학	167	56	11	5	13	3	255
	간호학교	24	10	6	3	4	0	47
지방	간호학교	210	62	14	9	24	4	323
	간호고등기술학교	233	81	14	4	11	0	343
Total		634	209	45	21	52	7	968

Note; 응답자가 1개 이상 응답했음.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가족계획 상담소, 가족계획에 대한 책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있는 기관, 정부 기관 등의 가족계획 기관을 대부분이 알고 있고 다음이 의사, 친구 또는 학생, 부모 등의 순서로 달고 있다.

(표 17)

F. 가족 계획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경로

응답자가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경로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Mass Media를 통해서 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다.

<Table 18> 간호학생들이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경로

(1969. 6.)

		신문	책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	Radio & TV	지역사회공회 Program	부모	친척	친구
서울	대학	2 (55.8%)	2 (55.8%)	1 (71.4%)					
	간호학교		2 (58.6%)	3 (31.0%)					
지방	간호학교		3 (60.4%)		2 (64.2%)				
	간호고등기술학교		2 (58.3%)			2 (58.3%)			
Total			2 (58.4%)	3 (56.0%)					

Note; 응답자수가 많은 차례로 순위를 정했음.

<Table 19> 가족계획에 대해 강의받은 과목

		과목								★ 들은 학년	
		보건간호모자보건	산부인과	가족계획세미나	기초간호	소아과	철학	가정	여러과목		무응답
서울	대학	55	49	—	1	1	1	1	1	—	3학년
	간호학교	29	3	—	1	1	—	—	—	—	3학년
지방	간호학교	58	21	—	2	1	4	3	—	1	3학년
	간호고등기술학교	66	18	8	—	—	1	1	—	9	2학년
Total		208 (77.9)	91 (34.1)	8 (3.0)	4 (1.5)	3 (1.1)	6 (2.2)	5 (1.9)	1 (0.4)	10 (3.7)	3학년

Note; 2개 이상 응답했음.

★ 응답수가 가장 많은 학년을 붙였음.

1. Mass Media

Mass Media를 통해서 얻은 지식중 서울지역의 응답자들은 잡지 또는 정기 간행물, 책과 신

문에서 지식을 얻었다고 한 사람이 많았고 지방에서는 Radio 및 집회, 지역사회 공회 Program을 통해서 얻었다는 사람이 많았다. (표 18)

<Table 20 A> 간호학생들이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을 받은 곳

지역 학교	강의 받은 일 있었다	장 소				
		학교	보건소	일상실습	무응답	기타
서울 대학	67 (87.0%)	61	1	4	2	—
서울 간호학교	29 (100.0%)	29	—	—	—	—
지방 간호학교	79 (74.5%)	78	—	—	1	—
지방 간호고등 기술학교	102 (88.7%)	82	41	—	—	1
Total	267 (81.7%)	250 (93.6)	42 (15.7)	4 (1.5)	3 (1.1)	1 (0.4)

<Table 20 B>

지역 학교	찬성	반대	기타	Total
서울 대학	71 (92.2%)	3 (3.9%)	3 (3.9%)	77 (100.0%)
서울 간호학교	28 (96.6)	0	1 (3.4%)	29 (100.0)
지방 간호학교	86 (81.1)	4 (3.8)	16 (15.1)	106 (100.0)
지방 간호고등 기술학교	93 (80.9)	3 (2.6)	19 (16.5)	115 (100.0)
Total	280 (85.6%)	10 (3.1%)	37 (11.3%)	327 (100.0%)

<Table 21> 간호학생이 사용하겠다는 가족계획 방법

지역 학교	사용할 방법	Oral	Condom	IUCD	Surgical	Rhythm	무응답	Other
		%	%	%	%	%	%	%
서울 대학		14	1	2	10	16	17	12
서울 간호학교		7	0	3	3	28	45	7
지방 간호학교		4	0	4	9	1	39	22
지방 간호고등 기술학교		9	2	12	1	1	24	17
Total		8	1	7	6	9	31	16

※① 괄호안은 각학교의 조사대상 학생수.

② Surgical은 난관 수술, 정관수술 두가지 포함.

③ Rhythm은 월경주기법과 기초체온법 두가지 포함.

④ 327명을 100%로 계산하다.

2. 학교 교육 과정.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학교 선생님께서로부터 가족계획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고 했으며,

3. 강의 받은 과목을 보면 77.9%가 보건 간호학에서, 산부인과 간호학에서는 34.1%, 기초 간호학에서 4.5%, 소아과 간호학에서 1.1%, 철학이 2.2%, 가정의 1.9%, 기타가 3.4%, 무응답이 3.7%로 보건 간호학과 산부인과 간호학이 대부분이었으며

4. 강의를 들은 학년은 일반적으로 3학년이었고 간호 고등 기술 학교에서는 2학년에 강의를 들었다고 응답했다.

5. 강의를 들은 장소는 거의가 학교 강의실이었고 보건소 실습이나 임상 실습에서 강의를 들었다고 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표 19와

20 A)

G. 응답자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 및 사용할 방법

1. 응답한 간호학생의 약 85.6%가 가족계획에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 및 기타로 가족계획에 협조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않은 응답자는 약 14.4%였다. (표 20 B)

2. 응답한 간호학생들 중 가족계획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수 가운데 Oral Pill을 사용하겠다는 수는 8%, Condom은 1%, IUD는 7%, Surgical 6%, Rhythm이 9%, 무응답이 31%, 기타가 16%로 가족계획은 실시하겠으나 스스로를 위해서 현존해 있는 방법은 대부분이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하겠다. (표 21)

3. 실용적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방법과 사용

<Table 22>

간호학생들이 생각하는 실용적 방법과 앞으로 사용할 방법과의 관계

(1969. 6.)

사용할 방법 실용적 방법	Condom	월경 주기	기초 체온	Loop	Oral Pill	정관수술	난관수술	무응답
Condom	18.2%							
월경 주기		63.4%						
기초 체온			75%					
Loop				22.8%				
Oral Pill					35.8%			
정관 수술						33.8%		
난관 수술							53.3%	
무응답								21.7%

Total No. of Respondents who showed consistency/Total No. of Respondents = 86/327 = 23.3(%)

<Table 23>

간호학생들이 원하는 자녀의 수

(단위 = %) (1969. 6.)

	아들				딸				관계 없이					무응답		
	0	1	2	3	0	1	2	3	0	1	2	3	4		5	
서울 대학	0	22.1	40.3	2.6	2.6	46.8	15.6	0	5.2	0	7.8	10.4	0	1.3	1.3	7.8
간호학교	0	27.6	48.3	3.4	0	51.7	27.6	0	3.4	0	3.4	3.4	0	0	0	0
지간호학교	0.9	24.5	38.7	0	1.9	48.1	11.3	2.8	5.7	0.9	3.8	7.5	0	0	0	16.0
방간호고등학교	0	12.2	51.3	8.7	0	33.9	35.7	1.7	1.7	0	1.7	6.1	1.7	0	0.9	8.7
Total	0.3	19.9	44.0	4.0	1.2	43.1	22.3	1.5	4.0	0.3	4.0	7.3	0.6	0.3	0.6	10.1

<Table 24>

간호학생들의 인구와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

(1969. 6.)

	上(0~5점)			中(6~10점)			下(11~14점)			Total
	찬	반	기타	찬	반	기타	찬	반	기타	
서울 대학	7	1	1	62	2	3	30	0	0	106
지간호학교	21	0	10	139	7	22	19	0	3	221
Total	28 (70.0%)	1 (2.5%)	11 (27.5%)	201 (85.5%)	9 (3.8%)	25 (10.7%)	49 (94.2%)	0 (0%)	3 (5.8%)	327
Grand Total	40(12.2%)			235(71.9%)			52(15.9%)			(100.0%)

할 방법이 일치하는 응답자는 총 327명 가운데 86명으로 26.3% 정도이고 가족계획 방법별 일치도는 (표 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Condom이 18.2%, 월경 주기법이 63.4%, 기초 체온법이 75%, Loop가 22.8%, Oral Pill이 35.3%, 정관 수술이 33.8%, 난관 수술이 53.3%, 무응답이 21.7%였다. 월경 주기, 기초 체온, 난관 수술에서는 비교적 50%이상의 일치로 높은 편

이나 반면에 Condom 및 Loop는 저조한 을을 보이고 있다. (표 22)

4. 응답자들이 원하는 자녀 수는 아들을 하나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0.3%, 하나를 원하는 수는 19.9%, 둘을 원하는 수는 44.0, 셋은 4.0%이고, 반면에 딸은 하나도 원하지 않는 수는 1.2%이고 하나를 원하는 수는 43.1%, 둘을 원하는 수는 22.3%, 셋은 1.5%이고 성별이 관

계 없이 아이를 원치 않는 수가 4.0%, 하나를 원하는 수가 0.3%, 둘은 4.0%, 셋은 7.3%, 넷은 0.6%, 다섯은 0.3%로 그 수가 줄고 있으며 낳는 대를 낳겠다는 수가 0.6%가 된다.

일반적으로 볼때 아들 둘에 딸 하나 삼남매를 원하는 경향이 보인다. (표 23)

H. 응답자들의 인구 및 가족계획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

별첨 질문지의 질문중 실제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질문에 아태와 같이 점수를 주어 총 14점 만점으로 채점 집계해 본 결과 전체 327명 가운데 0~5점을 획득한 응답자가 12.2%, 6~10점이 71.9%, 11~14점이 15.9%이고 가족 계획을 찬성하는 도가 점수가 높을 수록 그 수가 많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24)

질문번호	점수
1	2
2	1
3	3
5	1
6	1
10	1
12	1
14	1
19	1
22	1
23	1
<hr/>	
11개질문	14점

IV. 토의 및 제의

1. 가족계획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자가 구교에서 22.9%이나 타인에게 가족계획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나에서 16.4%가 "없다"이고 자신의 종교윤리로 스스로 사용할 수 없으나 가족계획이 필요로 되는 사람에게는 직업적 견지에서 조언하겠다고 만수라 하였다. 종교가 가족계획에 대한 직업적 의무관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개인의 종교적

양심과 지역사회 공익의 인식을 받아 종사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을 분명히하여 간호원 자신의 종교및 선택의 자유와 무관하게 공복으로서의 기능을 심본 발휘하도록 가족계획에 대한, 앞으로 간호원이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교육이 필요로 된다고 하겠다.

2. 우리나라 생정통제가 불비하다는 점은 이미 다 알고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행히 5년마다 인구동태를 알기위한 "센서스"가 있어 우리나라 총 인구는 몇 명이다 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어있다. 이러한 생정통제나 인구동태통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학문을 하는 학생으로서, 또 인구문제가 심각하여 국시로 삼고있는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나라 총 인구도 비교적 정확하게 노트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숫자는 귀찮은 것이어서 두려워 생각하고저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면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의 도 및 지식이 낮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외국에서는, 국민학교 학생까지 자기지방 인구는 얼마라는 것 씬은 흔히 알고 있어 언제고 들으면 대답할 정도이다.

3. 인구가 배가되는 기간에 대한 지식은 인구문제에 대한 장의가 있었다면 빼놓을 수 없는 지식이다. 정답이 28%, 즉 소수의 학생만이 알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별 큰 차는 이 분야의 교육 및 Information resource 의 격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의사업이 인구문제에 끼친 영향 즉 인구증가가 20세기의 문제로 대두된 원인을 파악수의 응답자가 잘못 인식하고 있다. 시정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4. 가족계획 사업이 지방을 위주로 시행되어 왔다는 사실과는 반대로 지방학생들은 인구문제를 국가적 3대 과제로 보지않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서울 응답자들이 인구문제를 국가적 3대 과제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끈다.

5. 이런 분야에 관여할 전문 직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국가가 가족계획 사업을 정부 프로그램으로 하는것에 대한 의견은 약 65% 정도가 협조적인 반면 26%는 중간노선에 있고 10% 정도가 정부사업으로 함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

나 직업적 견지에서 대부분이 (85.6%) 가족계획 사업을 근본적으로 찬성한다고 한다. 이상의 점을 미루어 보아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도 가족계획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했던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의 이해가 약 65%정도 미쳤고 약 20%는 이를 완전히 소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며 가족계획 사업은 찬성하나 가족계획 사업을 위한 방법론에, 응답자 가운데 이점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6. 졸업 간호원으로서 “가족계획을 위해 조언할 수 있다”가 90%나 되는 것은 가족 계획사업에 앞으로 참여한다는 가능성은 보이나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려 오지않는 사람에게 교육, 권유할 수 있겠다”는 약 75%로 보아 “Reach-out”하는 능동적 적극적 참여도는 낮다고 할 수 있겠다. 찾아와 원하는 사람에게 조언이나 교육올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필요로 되는 사람을 찾아 봉사할 수 있는 능동적 적극적 참여 기풍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7.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이 가족계획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Loop임을 알고 있으나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가족계획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응답이 상위임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Loop 또는 Vasectomy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나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는 짙은 회의가 서려있음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보통 4~5가지 가족계획 방법, Oral Pill, IUD, Surgical Method, Rhythm 등과 반수는 다 알고 있으나 Traditional Method로 특히 Coitus interruptus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가족계획 방법이 부작용이 없고 그 효과가 완벽하여 이미 알고 있는, 한 두가지 방법만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볼라도 대부분이 한 두가지 점에 있어서 선택 및 변경이 필요함을 생각할때 Modern Method나 Traditional Method 다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간호학생에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8.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의 학교에

서 시행되고 있음은 좋은 현상이며 약 80%가 보건간호학에서 가르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강의실 외의 실제실습은 거의 없는 실정인 것 같다. 산부인과 간호학, 소아과 간호학에서도 다소 관계하고 있으나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가족계획과 관련된 임상실습 계획이 있어 이론과 실제를 함께 배울 수 있게 과목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족계획과 관련된 제 분야의 협조를 얻어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간호원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학습경험을 주는데 이용할 수 있는 가족계획 교육내용 지도서 등이 마련되면 한다.

9. 응답자의 지식이 정확할수록 가족계획 사업을 찬성하고 더욱 자신있게 참여할 수 있을것을 믿어 간호학생들이 간호교육 기본과정을 배우는 동안에 가족계획 및 인구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교육이 절실이 필요로 된다.

V. 총 괄

이 연구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참여내지는 관장할 간호학생들의 가족계획 및 인구문제에 대한 태도 및 지식과 지식보급원을 점토허 보았다. 가족계획이 국가적 절실한 과제인데 비하여 인구문제와 가족계획에 관한 관심도는 지식으로 측정해 보면 낮고 불안하다고 볼 수 있다. 남을 교육하고 권유할 입장에서 일할 이들 응답자들이 자신있게 능동적으로 자기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하다.

VI. 감사말씀

이 연구 조사를 가능케 해주신 본 대학 학장 홍 신영 선생님과 이 연구를 위해 수고하신 자 학교 선생님과 참여한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Tietze, C. Kohl et al: Teaching of Fertility control Regulation in Medical Schools, J.A.M.A. (April) 1966
2. Chesterman, Helen: The Public Health Nu-

rise and Family Planning, Nursing Outlook, 12: 9, (September) 1964

3. Martin, Ruth.: Family Planning Teaching —A Survey., Nursing Outlook, 15:12(December) 1967

4. Carter, D. M.: Family Planning in Nursing Education, Nursing Outlook, 14:1, (January) 1966

5. Meier, G.: The Role of Hospital Nurses in Family Planning, A.J.N. 65:7 (July) 1965

6. Siegel, Earl: Some Approaches to Family Planning Counseling in Local Health Departments: A survey of Public Health Nurses and Physicians, A. J. P. H. 56:11, (November), 1966

7. Teaching of Family Planning in the Medical Schools, Nat. Inst.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Dept. New, Bethesda (January) 1967

Appendix

이 질문지는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인구나 가족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리는 한 노력일 뿐입니다. 각 질문 옆에 있는 공백을 이용하여 답해 주십시오. 이름은 원하지 않는 분은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쓰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나라의 현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
2. 우리나라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3. 위에서 “예”라고 대답하신 분은 몇년만 있으면 현인구의 두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7년() 23년() 35년() 69년()
4. 앞으로 25년간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순위로 셋만 기록하십시오.
 ㄱ. 국토방위와 통일 ㄷ. 경제 성장과 개인소득 증가 ㅅ. 칫제()
 ㄴ. 식량 증산 ㄹ. 돌제()
 ㅁ. 인구 성장 통제 ㅊ. 칫제()
 ㅂ. 동종보건 및 환경위생 향상 ㅋ. 교육 기회의 균등
5.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증가했습니까?
“예”인 경우
 ㄱ. 증가 일로에 있다 ()
 ㄴ. 증가 하나 소량이다 ()
 “아니오”인 경우
 ㄷ. 예전과 같다 ()

- ㄷ. 감소하나 소량이다 ()
- ㄹ. 감소 일로(현저히)에 있다. ()
- ㅁ. 모르겠다 ()
6.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사망율은 증가했습니까?
“예”인 경우
 ㄱ. 증가 일로에 있다 ()
 ㄴ. 증가 하나 소량이다 ()
 “아니오”인 경우
 ㄷ. 예전과 같다 ()
 ㄹ. 감소하나 소량이다 ()
 ㅁ. 감소 일로(현저히)에 있다 ()
 ㅂ. 모르겠다 ()
7.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의 변화는 다음 사람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ㄱ. 출산율의 변화 ()
 ㄴ. 사망율의 변화 ()
 ㄷ. 출산율과 사망율의 변화 ()
 ㄹ. 출입국자 수의 변화 ()
8. 지난달에 가족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ㄱ. 의료업계에 있는 동료와 함께?
 예() 아니오()
 ㄴ. 비 의료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예() 아니오()
9. 다음 중 어느것을 통하여 가족계획에 대한 것을 들으셨습니까? 모두 기입해 주세요.
 ㄱ. 신문() ㄴ. 책()
 ㄷ. 잡지 또는 정기 간행물 ()
 ㄹ. 라디오 또는 텔레비 ()
 ㅁ. 집회, 지역사회 광고 또는 프로그램()
 ㅂ. 부모() ㅅ. 친척()
 ㅇ. 선생(산부인과 간호, 보건간호, 기타)()
 ㅈ. 친구() ㅊ. 들은 일 없다. ()
10. 다음중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과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다 기입해 주세요.
 ㄱ. 의사() ㄴ. 가족계획상담소()
 ㄷ. 정부기관() ㄹ.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ㅁ. 부모() ㅂ. 를 공급하기 위하여 있
 ㅃ. 친구 또는 학생() 는 기관 ()
 ㅅ. 친척() ㅇ. 위의 것 중 하나도 없다. ()
11.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계획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인 경우

7. 예, 절대적으로 ()
8. 예, 아마 ()
- “아니오”인 경우
9. 아니오, 아마도 ()
10. 아니오, 절대로 ()
11. 모르겠습니다. ()
12. 위의 11번에서 “예”라고 답하신 분은 어느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3. 가족계획을 국가의 시책으로 정한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7. 국가적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유()
8. 국가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극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유()
9. 국가적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이유()
10. 의견 없습니다. ()
14. 우리나라 정부는 가족계획에 대해 어떤 태도인가?
7. 절대로 찬성 ()
8. 아마 찬성일 것입니다 ()
9. 정부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10. 아마 반대일 것입니다. ()
11. 절대로 반대 ()
15. 정부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
8. 아마 효과적일 것이다 ()
9. 아마 효과가 없을 것이다 ()
10. 아주 효과가 없을 것이다 ()
11.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16. 현 가족계획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너무한다() 8. 적절하다()
9. 불충분하다() 10. 의견없다()
17. 간호원으로서 가족계획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하는 경우 7. 절대적으로 ()
8. 약간 ()
- 반대하는 경우 9. 약간 ()
10. 절대적으로 ()
- 기타인 경우 11. 간호원전체의 의견으로서 표명된 것이 없음 ()
12. 일반적인 의견이 무엇인지 잘

13. 모르겠다 ()
18. 학교에서 가족계획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 “예”인 경우
7.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
8. 과목명 ()
9. 몇 학년때였습니까? ()
19. 가족계획에 관한 안내나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장소를 알고 계십니까?
- 예() 아니오()
7. 어디서(장소)제공합니까? ()
8. 누가 제공합니까? ()
9. 무료로 제공합니까? ()
20. 졸업후 간호사업에 종사하게 될때, 가족계획이 필요로 되는 사람들에게 가족계획에 관한 조언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 예() 아니오()
21. 졸업후 간호사업에 종사하게 될때,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려 오지않는 사람들에게 가족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예() 아니오()
22. 가족계획 방법중 아는 것을 다 나열하십시오.
7. () 8. () 9. ()
10. () 11. () 12. ()
23. 어떤 가족계획방법이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귀하의 연령은? ()
- 종교는? () 성별은? ()
24. 졸업 후 일하실 곳은?
7. 외국 도시() 농촌()
8. 우리나라 도시() 농촌()
9. 정부기관 ()
10. 사립기관 ()
25. 간호학 분야 중 특별히 흥미있는 분야는? ()
26. 귀하는 장차 몇분의 자녀를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들() 딸()
- 또는 아들, 딸 관계없이 ()
27. 결혼하시면 가족계획방법을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예() 아니오()
28. “예”라면 어떤 방법? ()
29. 귀하의 종교로 가족계획을 허용하기 어려우십니까? 예() 아니오()